

프로폴리스의 위력

두리원 대표 김해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지난호에서-

11. 피가 맑으면 만병을 다스린다

5. 산소 호흡기로 인한 비염

비염은 비점막의 염증을 총칭하여 비염이라고 한다. 감기 뒤에 온 비염은 감기가 나을 때 쯤이면 거의 낫게 되고, 길어 보았자 10일 정도다. 그러나 만성비염은 쉽게 낫지 않는다. 특히 공기가 탁하고 먼지가 많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비염이 많다. 근래에 와서도 산소호흡기를 부착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염이 오는 수가 있다.

울산의 오순화(울산시 남구)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때 산소호흡기를 1시간 부착했던 것이 비염을 앓게 된 동기라고 했다. 그 전에는 비염이나 인후염이 없었는데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나서부터 목이 따갑고, 코가 막히고, 흰콧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1년 반이나 지났지만, 뚜렷한 병명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를 얻지 못했고, 심할 때는 한달 중 15일을 병원에 다녔지만, 다니는 그때 뿐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 평소 위장도 좋지 못했는데 계속 신약만 먹게 되니 위장까지도 안 좋게 되었다고 했다.

위장이 나쁘다고 친구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그러면 프로폴리스 제품인 [프로-킹]을 한번 먹어보라해서 먹었는데 9일만에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고, 15일째 되니 생각지도 않았던 코까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3개월 사용으로 위장은 말할 것도 없고, 비염과 인후염도 깨끗이 낫게 되었다고 했다.

병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할머니 한 분도 자궁수술을 받을 때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뒤로 자기와 똑같은 증세로 앓고 있었지만,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요즘은 불신풍조가 너무 심해져 있어 누가 말을 해도 잘 믿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건강식품이라 하면 더욱 믿으려 하지 않는다. 고가제품을 구입해서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효과가 있었다는 사람보다는 효과가 없었다는 사람들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소개 받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친척이다. "친척은 설마 나를 속이지 않겠지?"하는 심리작용 때문일 것이다.

6. 불면증에 프로폴리스

동래에 사시는 김인숙 여사는 기분이 언짢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좀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아 약국에 찾아가서 수면제를 구입해 먹는다고 했다. 잘 때 수면제를 먹지 말고, 대신 포도주를 약간 마시면 잠이 한결 잘 오므로 그렇게 해 보라고 권하였더니 술은 조금만 먹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까지 빨갛게 되어 아예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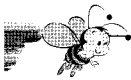
일본의 한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나와다 약학박사는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아 고심하고 있었는데 프로폴리스를 저녁에 잘 때 먹으면 깊은 숙면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따라 다니던 심한 피곤이 없어졌고, 아침이 되면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해 졌다고 했다.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잘 때 프로폴리스로 만들어진 [프로-킹]을 한 봉지씩 복용해 보라고 권했다.

이상하게도 프로폴리스를 먹고 나면 그날 밤에는 잠을 잘 자게 된다고 했다. 수면제를 먹고 잔 뒤에는 기분이 안 좋고 머리까지 무거움을 느꼈는데 프로폴리스를 먹고부터는 그러한 증세가 없어졌다고 했다. 자신은 프로폴리스를 먹고 낫을 때 입이 둔한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고 했다. 프로폴리스는 때에 따라 약간의 다른 증세들이 올 수 있으므로 심하지 않으면 더 먹어보라고 했다. 15일정도 복용하고부터는 그러한 증세도 없어졌다고 했다.

7.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에게

부산 연일시장은 연산동 로터리에서 동쪽으로 400~500m 거리에 있는 시장이다. 이곳에서 P회사의 대리점을 하고 있는 K씨는 연일시장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점포로 소문이 나있다. 그런 점포 주인인 K씨가 점포정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아봤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인데 내가 살아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나는 살 의욕이 없고 죽고 싶은 생각 밖에 없다"고 하니, 부인의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형제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형제들의 우애가 돈독한 집안이 되어서 일요일이면 모두 모여 야외에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향을 찾는 형제들이다.

여기에 좋은 처방이 없느냐?고 문의해 왔다. 정신적으로 산만해지고, 간간히 머리가 무거우면서 아프고,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는 것은 거의 산성체질



에서 온다. 산성체질이 되면 혈액이 탁해진다. 혈액이 탁해졌을 때는 정상적인 영양을 공급시켜도 세포에 전달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뇌에는 항상 결핍 현상이 일어난다.

갓난 아기가 배고프면 치근거리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듯이 우리 뇌도 영양 결핍 현상이 일어나면 잠이 오지 않고, 공상이 많아진다. 깊은 숙면을 취할 때 체내에서는 영양합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마저 되지 않기 때문에 몸은 더욱 피곤해지고, 정신적인 불안도 더 커진다. 뇌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 중에는 비타민 B와 칼슘, 아연, 철,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질이다.

피를 맑게하기 위해서 프로폴리스 제품과 영양 공급을 위해서 가공된 꽃가루(바이오폴렌)를 주었다. 피가 맑게 되면 세포에 영양공급이 잘 되므로 생체의 모든 기능이 강화된다. 생체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인 바이오폴렌을 주면서 1개월 사용하면 다소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2개월째는 잠념이 덜 생기고, 남이 볼 때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3개월이 되면 아주 좋아진다고 했다.

3개월이 되었을 때는 필자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욱 좋아져서 "자살에 대한 충동은 일절 없어지고,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했다. 수년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공포증이 있어서 큰 도로를 건너려고 하면 불안해서 건널 수가 없었다고 했다. 동료 학생들과도 말하기가 싫고, 학교가는 것도 죽는 것 같이 싫어져 부득이 휴학계를 낸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시켰는데 4개월만에 완전 건강을 되찾았다. 이 학생으로 인해 그의 고향이었던 문경 사람들까지 찾아 왔고 그의 친척들과는 지금까지 유대를 갖고 있다.

8. 프로폴리스는 활성산소 제거

인간은 햇빛이나 공기중에 산소가 없으면 잠시도 생존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과 식물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산소가 우리에게 필수불가결의 물질이지만, 운동을 과하게 하였거나 스트레스에 의해 아드레날린의 분리가 많아졌을 때 또는 과음이나 과식을 하였을 때도 에너지의 부산물의 활성산소(산소의 독)가 생겨난다.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요인 가운데는 우리가 호흡한 산소의 일부가 독소로 변화되어 생길 수 있고, 공기 속에 잔재해 있는 것을 흡입함으로써 생겨날 수도 있다. 체내에서 3%의 유해산소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운동을 해야 오래 산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장수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실지 운동선수들은

단명하고 있다. 64년 동경올림픽에 출전하였던 선수들 가운데 50%이상이 50대 이전에 사망하였다.

세포가 활성화될 때는 산소가 연소되면서 부산물로서 유해물질인 활성산소가 발생된다. 이때 100% 연소가 되면 활성산소는 발생되지 않는다. 불완전 연소가 생겨나면서 발생하게 된다.

운동 선수들은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오로지 이기기 위한 운동이다. 이들에게는 활성산소의 발생량도 많아지므로써 세포는 더욱 시달림을 받게 된다.

건강한 사람의 세포도 하루에 평균 1만회 이상의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활성산소가 체내에 들어가 다른 효소와 결합하여 유전자를 해칠 때는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의 조직이다. 인간의 수명은 유전인과 영양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활성산소라는 독소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가 오려고 하면 신경통이나 관절염 환자가 먼저 알게 되는 것도 활성산소와 관계가 있다. 기압골이 지나갈 때는 대기속에서 활성산소량의 수치가 정상시보다 높다. 이것을 더 흡입하게 될 때 손상된 신경조직이나 관절부위에 자극을 주므로써 통증을 더 유발시킨다.

낮보다도 밤에 통증이 더 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좋은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반감시킬 수 있는 반작용의 물질이 언제나 있게 되고 나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익한 물질의 작용도 있게 된다. 그러한 물질을 체내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갖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건강이 좌우되기도 한다.

체내에서 활성산소와 싸워 줄 수 있는 유익한 방어 물질을 SOD(Super Oxid Dimutase : 유해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관여하는 효소)라고 한다. 이것이 체내에 합성이 이루어질 때 활성산소가 발생되어도 이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SOD 효소가 활발히 생성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 40세 이후가 되면 세포내에서 합성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써 세포의 노화가 촉진되고, 세포의 손상도 있게 된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질병이 암, 당뇨 같은 성인병들이고, 관절염도 적용된다.

SOD 효소의 기능을 높여주므로써 활성산소의 분해 미 억제작용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이 엽록소와 씨앗, 나무의 껍질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프로폴리스이다.

9. 프로폴리스는 급사병을 막아준다

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없었던 70년대까지만 해도

병원으로 급히 옮기지 못해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는 병원까지 가는 데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오지도 많았다.

영천지역에는 90년도 후반부터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보현산 천문대가 생겼다. 천문대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 바로 보이는 마을이 정각이라는 동네다. 지금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영천시 내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지만, 15년전만 해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2시간이나 소요되었던 지역이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1만불에 접어 들었고,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의료혜택을 못받아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그 대신 혈액장애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많아졌다. 이 질환은 죽지 않으면 일생동안 불구로 보내야 하므로 혈관관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 의학에서는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오는 병을 뇌졸중으로 표현하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고 한다. 뇌졸중 외에 급사할 수 있는 병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다.

이러한 병들은 모두가 혈의 고지혈증(혈청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에서 온다. 고지혈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혈이 탁해져 있다는 뜻이다. 혈이 탁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혈액순환이 안된다는 것은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원인은 음식물의 잘못에서 얻어진 병이다. 하나님은 주신 자연의 식물을 1차 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체액이 약알카리성(pH 7.2~7.4)이 되어 피는 맑게 흐를 수 있다. 그러나, 2차 식품이나 3차 식품 위주의 식생활을 선호하면 체액이 산성화되어 혈액은 탁해진다.

그 외에 긴장된 생활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혈액은 탁해진다. 마음이 편안하고 유쾌할 때는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 T·B 임파구가 우리몸에서 잘 분비된다. 그러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프로-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많아져 혈관을 좁혀주고, 활성산소량이 많이 지므로써 혈액을 탁하게 만든다.

최형우 국회의원이 97년 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프로폴리스를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복용했다라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하게 되었다. 최의원이 고향이 필자와 같은 울산시 울주군이고, 지금은 필자가 살소 있는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출신이 되어서 마음이 한결 더 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은 정치인이나, 사업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제일 없을 것 같은 중

교인(목사)에게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 원인은 항상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식사를 조금 발리하거나 늦게하여도 교인들 사이에 구설수에 오른다. 어디 그것 뿐인가! 목회자가 너무 근엄해도 권위주의로 나간다고, 호인형이 되어 친교성이 많으면 목사의 체통을 지킬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므로 하나하나가 구설수의 대상이 되다보니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 외에 외식이나 초대받은 일도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단백, 고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므로써 혈액에 지방과 요산이 많아지면서 탁해진다.

피는 생명이다(레위기 17:11)라는 성경말씀은 잘 알면서도 혈이 탁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40대에 들어와서 손발이 저리고 뒷골이 땡기고, 육교에 오를 때 심장의 부담을 느끼면 벌써 성인병에 등록된 입문생이다.

모든 병의 90%는 혈의 혼탁에서 오고 있다. 국민일보(97년 7월 3일자)에는 마음을 착잡하게 만드는 기사가 나와 있었다.

한창 일할 나이의 목사들 가운데 급사하시는 분이 연 150명이나 된다고 했다. 이 분들이 열정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절망밖에 없다는 표현이었다.

사모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교회에서는 약간의 위로금을 주고 사택을 비워 달라고 할 때는 현실의 암담함에 놀라 나올 눈물도 없어진다고 했다.

전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각 지역마다 어려운 교회가 많다보니 그러한 교회도 혹 있을 수 있다.

교회는 사랑의 모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외치고 있다. 사랑을 외친 뒤에는 실천해야 할 의무를 또한 갖고 있는 것이 교회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분이요, 예수를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을 박힘으로써 사랑의 표본이 되어 주신 분이시다.

만일 교회가 사랑을 잃어 버린다면 맛을 잃고 버린 바 되는 소금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영혼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한 육체를 또한 원하고 계신다.

필자가 20년간 질병을 앓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건강해야 되겠지만 교인들도 역시 건강해야 한다. 생명이 되는 피를 맑게 하여 주면 성인병이나 급사병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프로폴리스를 치료용의 1/3만 평소에 사용해 주어도 그러한 병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